



## 도심 한복판, 오아시스 같은 스위스 호텔.

### 허니문에도 제격

도심 속 초록 공간에 묵어가는 하룻밤  
 저마다 특별한 디자인 감각 뽐내  
 스파나 라이브러리, 호반 전용 구역  
 가까운 거리에는 관광지가

바로 창밖 넘어가 도시이지만, 그 분주함에서 진정 벗어난 분위기를 품은 호텔이 있다. 다른 많은 시티 호텔과 달리, 이런 “고요의 오아시스”는 편리한 위치 그 이상을 선사해 준다. 도시를 체험하고 싶지만, 휴양지의 느낌도 함께 원한다면, 이런 곳들이 완벽한 선택지가 되어준다. 봄 시즌 허니문너들도 눈여겨볼 만한 도심 호텔을 소개한다.

### 1. 취리히(Zurich)의 비투 부티크 호텔 + 스파(B2 Boutique Hotel + Spa)

객실 저마다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층고가 11m 나 되는 라이브러리에 33,000 권의 책이 꽂혀 있는데, 압도적인 배경이 되어줘 인스타그램에서도 핫한 스팟이 되었다. 호텔 루프탑에 유명한 뢰를리만(Hürlimann) 노천 스파가 있어 허니문너들에게 더욱 인기다.

### 2. 바덴(Baden)의 아트리움 호텔 블루메(Atrium Hotel Blume)

고대 로마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호텔 곳곳에서 빛을 발한다. 역사적인 스파 구역,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도 좋다. 이제는 두 번째 세대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로맨틱한 레스토랑은 갤러리에 자리해 있는데, 곱게 단장한 안뜰이 내려다보인다. 스파 마을에 있는 호텔답게, 호화로운 스파 체험도 할 수 있다.

### 3. 루체른(Luzern)의 호텔 데 발랑스(Hotel des Balances)

로이스(Reuss) 강가의 역사적인 호텔로, 우아한 전면부와 널찍한 공간의 라운지, 감각적인 객실이 돋보인다. 환상적인 뷰가 한가득 들어오는 별빛 아래 놓인 옥조에서 기막힌 낭만을 체험할 수 있다.

### 4. 샤프하우젠(Schaffhausen)의 소렐 호텔 뤼덴(Sorell Hotel Rüden)

샤프하우젠의 리바디(Rhybadi) 수영장에서는 긴장이 풀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18 세기 길드하우스였던 쉰프트하우스 쉰 뤼덴(Zunft Haus zum Rüden)에서의 하룻밤이면 일상의 걱정은 곧 잊히고, 다음날 풍성한 소렐 스타일 조찬을 즐길 수 있게 된다.

### 5. 툰(Thun)의 콩그레스 호텔 제파크(Congress Hotel Seepark)

툰 호숫가에 바로 마주한 호텔로, 다채로운 워터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호텔 소유의 카약, 카누, 스탠드 업 패들 보트를 이용해 호텔에서 호수로 바로 진입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 6. 툰(Thun)의 솔로스 샤다우(Schloss Schadau)

샤다우 성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묵어볼 수 있다. 고성 앞에 조성된 샤다우 공원은 영국 정원 식으로 디자인되었는데,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호숫가 옆에 있는데, 앞으로는 아이거(Eiger), 뮌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의 대단한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공원에는 고목도 여럿 있다. 공원의 숲길 트레일에서 오래된 나무를 찾아볼 수 있다.



**7. 취리히(Zurich)의 마르크트가세 호텔(Marktgasse Hotel)**

라이브러리와 그 옆으로 연결된 살롱은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다. 재미있는 보드게임 외에도 삶에 있어 더욱 품위 있는 것들에 대한 책도 많이 있다. 라이브러리와 살롱은 비즈니스 미팅, 생일 파티, 낭독 및 소규모 콘서트를 위해 대관할 수도 있다.

**8. 취리히(Zurich)의 소렐 호텔 취리히베르크(Sorell Hotel Zürichberg)**

취리히의 도시, 호수와 알프스의 뷰가 그저 감탄스럽기 그지없다. 복원을 거친 아르 누보 양식의 건물과 건축가 부르크할터(Burkhalter)와 수미(Sumi)가 지은 현대적인 부속건물은 평화와 고요를 찾아 긴장을 풀고자 하는 이들에게 인기다.

**9. 취리히(Zurich)의 비더 호텔(Widder Hotel)**

렌베그(Rennweg) 골목에 있는 비더 가든은 분주한 반호프슈트라세(Bahnhofstrasse)에서 단 몇 분 거리에 있다. 취리히 구시가지 한복판 어여쁜 공간에서 잠시 머물다 가라고 손짓한다.

**10. 다보스(Davos)의 샤프알프 스노우 & 마운틴 리조트(Schatzalp Snow & Mountain Resort)**

파노라마 레스토랑이 샤프알프 철도가 운행되는 산악 역 바로 옆에 있다. 커다란 테라스에는 햇살이 가득하다. 대단한 파노라마 외에도 호텔이 가꾸는 보태니컬 가든은 감탄을 자아낸다.

**11. 루가노(Lugano)의 그랜드 호텔 빌라 카스타놀라 루가노(Grand Hotel Villa Castagnola Lugano)**

빌라 카스타놀라는 미식 레스토랑, 웰니스 시설, 공원, 호숫가 프라이빗 테라스로 유명한데, 일상에서 탈출한 기분에 흥뻑 빠지게 해준다. 크리스털처럼 맑은 물, 기막힌 날씨, 여러 구획의 호숫가가 루가노 호수를 완벽한 물가 휴양지로 만들어 준다.

**12. 루가노(Lugano)의 더 뷰(The View)**

부티크 디자인 호텔로, 인테리어만큼이나 아름다운 뷰를 선사한다. 투숙객들은 루가노 호수의 마법 같은 뷰를 옥조에 앉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때 묻지 않은 주변 환경은 낭만주의 페인팅만큼이나 고귀하다.

자료 협조: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http://www.MySwitzerland.co.kr)